DOI http://dx.doi.org/10.36432/CSMKH.57.202507.15

서평 3

일상사를 향한 실천들의 이합(離合)

정병욱 · 이유재 기획, 권내현 외 8인 지음, 『작은 사람들의 일상사』 (푸른역사, 2025)

임광순*

1. 한국 일상사 연구의 궤적
2. 일상사에 대한 '최소 합의'와 불균질한 결합
3.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과 필요한 답변들
4. 관점으로서 일상사 연구를 향하여

1. 한국 일상사 연구의 궤적

일상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역사학은 일상(日常)에 대해 굳이, 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게 되었을까? 일상은 본래 근대 역사학의 전통적인 주제가 아니었다.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는 "서구사상의 전통 속에서 일상적인 평범한 것은 정치적인 것에 대항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1] 이 명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한국에서 바라 보았을 때에 복잡한 문제를 던져준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대표논저: 「박정희 정권기 서울 인구집중과 인구이동통계 제도 수립」, 『역사와 현실』 136, 한국역사연구회, 2025; 「1950~60년대 전태일 가족의 서울 이주와 정착」, 『역사비평』 133, 역사문제연구소, 2020.

1) 미셸 마페졸리, 「한국어판 서문」, 미셸 마페졸리 편,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1994.

다. 문장 그대로 해석한다면 일상은 그저 정치적인 것에 대항하는 무언가로 보인다. 정치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전통에 대한 반발, 그리고 사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 "서구사상의 전통 속에서"라는 말을 한 번 더 되뇐다면 '한국 지성사에서 일상은 무엇인가'라는 조금은 새로운 질문까지 고민하게 된다. 결국 지역에 상관없이 등장한 '일상'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면서도 한국에서 발 딛는 연구와 삶 속에서 '일상'은 다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한국에서 일상사는 1990년대 이래 이탈리아 미시사, 영국 마르크스주의 사회사, 미국 신문화사, 포스트모던 역사학 등과 함께 소개되었다. 이 시기에 소개된 여러 역사학의 갈래들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또는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발이거나 이를 극복하려는 역사학계의 시도였다. 그래서인지 일상사는 구술사, 문화사, 지역사, 미시사 등과 함께 비슷한 역사학 조류로 이해되기도 한다. 일상사의 독립적 영역을 고려하면 옳지 않은 이해지만 독일 일상사의 등장 맥락을 고려하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이는 한국으로의 전파 과정을 보아도 그렇다. 독일 일상사는 1990년대 한국 민중사와 진보 역사학계가 가졌던 사회참여적 문제의식과 '아래로부터'의 관점들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법했다. 즉 한국에서 일상사 소개는 한국 역사학의 고민 속에서 주체적으로 전유된 측면이 강하다.[2] 나치시대를 살았던 부모들의 삶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박정희 신드롬 속에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독일 일상사의 소개가 한국 일상사 연구로 곧장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2) 이상록·이유재, 「프롤로그 : 국경 넘는 일상사」, 이상록·이유재 엮음,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26~27쪽.

그 부침이 존재했다. 2002년 알프 뤼트케를 비롯한 주요 논자들의 글을 엮은 『일상사란 무엇인가』가 번역·출판되었다.[3] 2005년 한양대 비교문화연구소는 독일 에어푸르트대학교 역사인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일상사, 그 가능성과 한계'라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이를 엮어 2006년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 한국과 독일 일상사의 새로운 만남』이 출판되었다.[4] 이 책에는 당시 한국 근현대사 신진 연구자들이 해외 일상사 연구를 대표하는, 어느덧 노장이 되어버린 알프 뤼트케, 마하엘 빌트, 피터 램버트, 도로테 비얼링과 함께 글을 실었다. 고무적인 성과에 힘입어 피터 램버트의 말처럼 독일과 한국에서 서로 대등한, 혼합성에 기반한 일상사 연구가 집단적으로 이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상사 연구는 연구 그룹이나 연구 지향으로서 진전하지 못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2015년 튀빙겐대 이유재, 도시샤대 이타가키 류타, 고려대 정병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가 시작되면서 일상사 공동 연구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 이들은 ①일상사 연구의 활성화, ②일상사 교재 집필, ③후학 양성의 공동 목표를 세우며 일상사 워크숍을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이들은 전범이 될만한 경험연구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연구자들로 팀을 구성하고 연구를 전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10년 전 연구팀이 일상사를 지향하였으되 당장 일상사 연구를 축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자 자리에서 왕성한 연구를 전개하던 연구자들이 모여 '일상사'라는 새로운 범주로 공동작업을 시작했다는 말이 맞겠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다섯 차례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일상사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2021~2022년 워크숍의 원고들을 발

3) 알프 뤼트케 외, 나종석 외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4) 이상록·이유재 엮음, 앞의 책, 5~8쪽.

전시켜 엮은 책이 『작은 사람들의 일상사』이다. 2006년의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가 독일 일상사 연구 방법론의 소개와 한국사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 출간된 『작은 사람들의 일상사』는 한국의 관점에서 일상사 방법론을 재해석하고 경험연구로 밀고 나간 성과를 한차례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 일상사 공동 연구의 대표 사례이자 현주소를 보여주는 저서이다.

2. 일상사에 대한 '최소 합의'와 불균질한 결합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론을 소개할 때에 "과거의 것과 무엇이/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마주한다. 학술장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은 역사철학부터 사례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그 자체로서 기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킨다. 일상사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제기될 때에, 한국에 소개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68혁명을 거친 1970년대 독일 젊은이들에게 부모 세대의 나치시대 경험은 그 자체로서 논쟁적이고, 비판적이었으며, 새로운 해석 틀을 필요로 했다. 나치즘을 비정상적이고 사악했던 것만으로 치부하기에 나치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저항적이지 않았고 때로는 평온해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진 지역에서의 역사운동은 1980년대에 알프 뤼트케, 테틀레프 포이케르트 등에 의해 일상사 연구로 전환될 수 있었다. 1984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역사학자 대회(Deutscher Historikertag)는 비제도권에 있던 일상사의 체계화 및 학계로의 진입 시도를 의미했다. 위르겐 코카로 대표되는 사회사 그룹과 알프 뤼트케로 대표되는 일상사의 격한 논쟁은 결과적으로 일상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차별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사회사와 일상

사 모두 위로부터의 역사를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졌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달랐기 때문이다.

독일의 초기 일상사 연구는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강조하였다. 뤼트케는 정치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행위들까지 일상으로서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계급과 문화를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합의 지향이라 설명했다. 그는 일상이 진부하고 별 의미가 없다는 비판에 맞서 일상을 탈정치화해서 보지 말아야 하며,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으로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5] 포이케르트는 일상사 연구가 지엽적인 문제와 미시적 그림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생활세계 구조들이 갖는 복합성을 이해하고, 목적 지향적인 분석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6]

이러한 서술들은 한편에서 '일상'이 비정치적이고 무의미하다는 비난에 대한 자기방어였고, 다른 한편으로 '일상'을 특정한 영역(연구 소재)만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이 보기에 '일상'은 협소하게 이해될 수 없는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순응과 저항, 일상과 비일상으로 구분지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였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일상은 무엇이냐? 일상사가 '작은 사람들'을 본다면 기존의 민중사와 무엇이 다르냐? 일상에서 '정치'는 발견 가능한가? 그 성격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 말이다. 이 책의 저자들 또한 이와 같은 질문에 통일된 답변을 도출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엮은이의 말에서 이유재의 글을 인용하고 한국 일상사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이것이 개별 논문에 합의된 관점으로서 관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홉

5) 알프 뤼트케, 「일상사란 무엇이며, 누가 이끌어가는가?」, 알프 뤼트케 외, 나종석 외 옮김, 앞의 책, 2002, 42~45쪽.

6)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김학이 옮김, 『나치시대의 일상사』, 개마고원, 2003, 11쪽.

편의 서로 다른 글들이 거리를 두었다가도 합쳐지는(離合) 모양이다.

> 일상사 워크숍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재의 '일상'과 '일상사' 개념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참석자 각각이 생각하는 '일상'이나 '일상사'가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 이번 책에 실린 글들이 다 앞선 편자의 바람대로 일상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지만, 세상을 전유하는 행위자의 다층적 실천을 보여주려 한 점에선 일치한다. 행위자를 둘러싼 조건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잘 보이지 않던 구조를 드러냈고, 행위자의 전유에 의미를 부여하며 조금씩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을 확인했다. (10~13쪽)

그럼에도 아홉 편의 글을 읽다 보면 ①거대한 구조로만 역사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 ②역사 속에서 개인이 삶의 조건을 선택하거나 전유하는 것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상사 연구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듯, 일상사가 단일한 이론으로 회귀될 수 없는 복잡성을 띠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점으로서 일상사'라는 선언을 실제 연구에 적용했을 때에 개별 연구자마다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은 사람들의 일상사』는 집단 연구로서든 개인 연구로서든 2025년 한국 일상사 연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글을 모아 수록한 책이다. 따라서 아홉 필자는 위와 같은 최소 합의를 이뤘지만 각자 연구 대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 차이를 보였다. 수록된 글의 각 문제의식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시대 연구자인 권내현과 김경숙의 글을 살펴보자. 권내현은 유유 가출사건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여 16세기 조선인들이 관습과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사건 연루자들의 각기 다른 행동들은 제도를 활용한 하나의 생존전략이며, 이러한 것이 작동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균분

상속에서 장자 우대 상속으로 넘어가는 시대 상황과 관련"(31쪽) 있었다. 김경숙은 18세기 신씨 가문 여성들이 4대에 걸쳐 친소·친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흔한 현상이 아니었지만, "가부장적 가족 질서의 구조 내에서 억압되어 있던 주체적 행위자의 모습이 남편의 부재라는 비상적 상황을 계기로 표면으로 표출"(81쪽)된 것으로 보았다. 두 필자는 조선 후기에 가부장 질서가 강화되었다는 역사상을 공유하면서도 조선시대 주체로서 개인에 주목하여 이들이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양상을 설명했다. 일상사에서 말하는 전유의 과정을 조선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풀어냈다. 나아가 일상사의 문제의식을 근대 이전의 역사 분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정병욱은 식민지기 지배자들의 자료를 통해 '불경'한 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반대로 '불경'한 자들이 천황제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했는지 분석하였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저항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민중의 '이기심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을 내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122쪽)고 말한다. 이는 민중 세계가 갖는 非저항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일상에 대한 내재적 이해–어쩌면 비엘리트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를 이항대립적 인식 극복 방법으로 본다. 안승택과 이타가키 류타의 글은 정병욱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먼저 안승택은 1960~70년대 한국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폭력과 사건들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했는데, 이를 통하여 사건과 일상이라는 "이항대립의 정태적인 범주들에서 삼항대립의 동태적인 범주들로 분석 틀을 변환"(246쪽)하는 것을 일상사의 힘으로 보았다. 일상과 사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일상을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타가키 류타는 교토한국학원의 이전문제와 지역사회의 반응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냉전'을 이미 존재하는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 여러 관계가 형성되고 변용하는 가운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349쪽)하자고 제안한다. 일본에서 형성된 '38도선'의 경계는 조선인/한국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일본인들, 구체적으로는 일본 주민편에서 한국학원을 반대했던 행정당국과 정치가, 그리고 냉전을 내면화했던 좌파 일본인들이라 분석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냉전과 같은 거대한 개념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일상에서 새롭게 주조된다고 보았다.[7] 이상의 연구들은 일상/사건 또는 저항/순응의 이항대립적 역사관을 선언을 통해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재적 분석으로 극복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이항대립적 역사상의 극복 수단으로서 일상사를 선택하였다.

일상의 영역을 직접적인 정치 통로로서 접근하고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먼저 이유재는 성 베네딕도 수녀회와 신자들의 선교활동을 분석하였는데 위에서 아래로, 남성에서 여성을 향한 선교라는 보수성을 직접 타격하고 극복하기보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창조적 전복'을 일으킨 평신도들을 강조한다. 소현숙은 1950~60년대 학교권력이 여학생들의 일상에 개입한 과정을 '풍기문란'과 단속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때 여학생들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규범을 벗어나는 작은 일탈들로 대응하였다. 필자는 이를 "일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의 기반"(206쪽)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일상

7) 이타가키 류타의 제안은 '개념사' 연구와도 일부 접목할 수 있다. 개념사를 연구한 나인호에 따르면, 이견이 없는 개념 정의(定意)는 있을 수 없으며 결국 개념 정의를 둘러싼 논란들은 특정 사회의 정치, 사회적 기능 수행 여부를 이해하는 척도이다. 거대한 개념의 등장보다 각 개념의 형성과정이 그 사회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힘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다(나인호, 「코젤렉의 개념사 연구」, 『내일을 여는 역사』 41,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0). 이는 개념사를 언어적 전환으로 이해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독일 일상사의 흐름과도 다른 접근법이다. 이는 서구를 통해 주요 개념어가 유입되었지만 이를 다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비서구권 학문장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에서의 일탈들이 모여 역사 변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관점이다. 이는 일탈을 저항의 前단계 또는 잠재력으로서 바라본 것이다.

한편 이상록은 저항의 잠재력이라기보다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통로로서 일상에 주목하였다. 그는 1970년대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의 서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가는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세속종교처럼 운영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위로부터의 정치 작동을 의미하지 않았다. "수료생들의 신앙에 가까운 반응의 이면에서 '국가가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식의 인정욕구 충족과 공적 활동 수행에 따른 작은 권력의 획득, 가정 및 마을 내에서의 인정과 해방감"(305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 결합이 일상에서 작동했기에 국가는 세속종교로서 새마을운동을 운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윤정은 형제복지원 운영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일상은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통로이다. 감시체계에 대한 개인의 대응보다 형제복지원 '이후' 삶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개인의 강한 의지 또는 일상사적 '아집'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상과 주체는 다소 분리된 모습으로 기술되기도 하였다.

3.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과 필요한 답변들

『작은 사람들의 일상사』는 공저로서 최소 합의 속에서 개별 연구의 개성을 드러낸 책이다. 여기에서 최소 합의는 '일상'을 분석하여 ①미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를 드러내고, ②행위자의 전유를 통해 기존 역사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상'은 개별 행위자들–'작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일상사란 '작은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분명 역사를 지나치게 구조나 제도 중심으로 보았던 서술에 문제를 제기한다. 구조와 제도 중심의 역사서술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 개인들을 기존 질서에 투항하거나 저항한 사례만으로 볼 위험성이 있다. 예컨대, 조선후기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 강화를 곧 모든 조선인의 가부장제를 향한 투항으로 볼 수 없다. 반대로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인들이 가부장제의 바깥을 향해 투쟁하였다고도 보기는 어렵다. 평범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은 제도와 권력이 갖는 규정력 안에서 이에 순응하기도 하며, 이를 비트는 방식(전유)으로 일탈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장점을 가졌지만 사례 연구에서 합의되지 못한 것들은 독자들의 예상 가능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다. 몇 가지 질문을 예측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을 다 읽고 독자들은 "그래서 일상사는 ○○○이구나"라면서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일상사 워크숍이 지향했던 '교과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건사와 일상사와의 관계성, 또는 미시사와 문화사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독일 일상사가 국내에 소개된 이래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여기에 필자들이 모두 답할 필요는 없지만 엮은이들의 입장 이상의 진전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 일상사의 이론화에 앞서 충분한 경험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일상사 워크숍과 공동 연구,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 경험 연구를 쌓고, 이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쟁이 도출되어야 한다.

둘째, 독일 일상사는 나치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 속에서 구성되었다. 따라서 독일 일상사 연구는 나치즘과 근대성의 관계, 독일 근대화의 성격 등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한국과 독일

의 역사적 경험은 다르다. 그럼에도 독일 일상사의 문제의식이 독일식 근대화 모델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고민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즉 한국 일상사 연구는 '작은 사람들'의 행위성을 통해/넘어 한국의 근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9세기 서세동점의 시대에 조선사회의 구체제 지속과 변화는 무엇이었으며, 20세기 식민통치와 해방, 그리고 분단과 독재라는 '정치·경제·사회의 격변' 속에서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대응은 다시 한국의 역사상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답변으로 나아가야 '관점으로서 일상사'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상사는 하나의 연구 방법론이며, 모든 역사적 질문에 답변을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모든 역사철학의 짐을 떠넘길 수도 없다. 그럼에도 독일 일상사가 1980년대 이래 치열한 논쟁 속에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독일 제도권이 아니라 영미권에서 먼저 번역, 수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일상사의 문제의식이 유효한지, 접목 가능한지 사례연구와 논쟁을 통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4. 관점으로서 일상사 연구를 향하여

『작은 사람들의 일상사』는 한국 일상사 공동 연구의 재개와 성과를 보여준다. 한국 역사학의 맥락에서 일상을 정리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독일 일상사에서 주요하게 제기했던 개념들–연루, 전유, 아집 등–을 단순하게 비교하거나 묻는 행위는 불필요하다. 이는 경험 연구들의 축적과 한국 일상사의 논쟁이 진전되면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개별 연구

들이 쌓인다고 이것이 자연스레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상사가 기존 역사상에 균열 내기를 넘어서려면 결국 포이케르트의 말처럼 "초지일관하는 목적 지향적인 분석적 관심"과 "자신의 일상을 도덕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의식과 가치 지평을 확보"해야 한다. 일상사를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소재 연구로 한정하지 않고, 일상으로부터 정치성을 드러내고 행위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면 '관점으로서 일상사'에 보다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경험연구들을 모아 논자별 일상사의 이해 방식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일상사를 재구성하면서 생산적인 논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사는 '일상'이란 추상어보다 그 하위에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물질성을 분석하며 연구되어야 한다. 서평자로서 다음과 같은 한국 일상사 연구를 상상해본다. "일상사와 ○○○"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는 공동작업을 통해 관철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상사와 냉전"은 냉전의 구축 및 운영, 균열 과정을 작은 공동체 및 개인의 행위들을 통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이타가키 류타의 글은 이러한 연구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각기 다른 지역과 공동체, 사람들의 행위를 분석하여 '냉전'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다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논쟁하면서 다시 일상사, 냉전사 연구를 탄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일상사로 본 전쟁경험, 일상사와 여성, 공장노동의 일상사, 이주와 일상 등의 연구 주제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 폭력, 신체, 문화 등을 일상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통해 다시 당대 사회의 성격을 되묻는 작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합(離合)의 실천들을 총합(總合)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합(異合)으로 다시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상사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과 공동작업, 그리고 (해체가 아닌) 재구성과 논쟁에 대한 의지이다.